

〈傷逝〉－ 魯迅의 여성과 혼인에 대한 갈등

許根培* 李蘭英**

◁ 목 차 ▷

- I. 서론
 - II. 〈傷逝〉의 자서전적 성격
 - III. 동거 전 子君 형상 속의 許廣平
 - 1. 진실한 사랑의 동반자
 - 2. 연인에 대한 열등감
 - 3. 사랑과 현실 사이의 갈등
 - IV. 동거 후 子君 형상 속의 朱安
 - 1. 봉건적 결혼의 반려자
 - 2. 아내에 대한 연민
 - 3. 사랑과 인륜 사이의 갈등
 - V. 결론
-

I. 서론

〈傷逝〉는 魯迅의 작품 중 유일한 애정소설로서 1925년에 창작되었다. 〈傷逝〉는 魯迅의 다른 소설과는 다른 서사 기법과 독특하고 복잡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이 발표된 이래 학자들은 끊임없이 그 의미와 창작동기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魯迅 소설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사상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서 魯迅의 〈傷逝〉에 대한 연구는 공리적 측면을 많이 띠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傷逝〉는 魯迅이 지식인과 부녀문제를 새로운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연구를 비롯하여, 5·4운동 퇴

* 公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 公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조기 지식인의 비극적 생활을 지적해 냈다.¹⁾ 또는 새로운 풍조의 청년남녀의 애정 비극을 통해 느낀 작가의 사상계몽에 대한 우환의식을 표현했다²⁾는 연구가 있다.

본고는 魯迅의 〈傷逝〉가 작가 자신의 인생 갈림길에서 여성과 혼인에 대한 방황과 선택을 소재로 지은 自敘傳의 작품이라는 관점 하에서 논하고자 한다. 작가는 작품 밖에서나 작품 안에서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 있으면서 작품에 끝없이 영향 관계를 맺고 있다.³⁾ 따라서 〈傷逝〉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작품 속에 내재된 작가의 진실한 심경과 의식 속에 깊이 위치한 여성과 혼인에 대한 갈등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세속에서 살아가는 魯迅의 인간적인 욕망, 곤혹 등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傷逝〉의 창작으로 귀결되는 魯迅의 삶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傷逝〉의 자서전적 성격

본고에서는 〈傷逝〉가 魯迅의 自敘傳 성격의 작품이라고 보는 이유를 창작 시기, 발표 시기, 소설의 제목과 세부 묘사 등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다.

첫째, 창작 시기

5·4운동의 쇠퇴기는 魯迅이 사회적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 항전을 위한 여러 고민을 줄곧 진행했던 시기였다. 魯迅 스스로 《野草》에는 나의 개인적인 철학이 녹아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심리적 고민과 고통을 잘 보여준 것은 《野草》라고 할 수 있다. 《野草》는 대부분 1925년에 집필되었으며 적어도 한 달에 한 편 이상을 완성하였다.⁴⁾ 그런데 8월부터 11월까지의 공백기이다. 바로 이 공백기에 魯迅은 자신의 일관된 창작 풍격과는 사뭇 다른 두 편의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孤獨者〉와 〈傷逝〉이다. 이 두 작품은 산문집 《野草》와 함께 魯迅 문학에 있어서

1) 丁潤生 〈情感的壓抑與詩的升華〉: 「〈傷逝〉這篇以青年男女的戀愛和婚姻爲題材的小說, 它揭示的是中國'五四'退潮期知識分子的悲劇性生活。」(《黔南民族師範學院學報》, 2004年 第五期, 4쪽)

2) 宋劍華 〈〈傷逝〉: 魯迅對思想啓蒙的困惑與反省〉: 「它以一對新潮青年男女的愛情悲劇, 深刻表達了魯迅對於思想啓蒙的憂患意識。」(《河北學刊》第30卷 2010年 7月, 第4期, 91쪽)

3) 박종석 《작가 연구 방법론》(서울, 도서출판 역락사, 2005), 22쪽.

4) 《野草》 총 23편 중 1925년에 쓴 15편은 각각 1월에 3편, 2월에 1편, 3월에 1편, 4월에 2편, 6월에 3편, 7월에 2편, 12월에 3편이다.

심리적 고민과 자아성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작품일 뿐만 아니라 魯迅의 일생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을 체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

1925년 3월 許廣平은 교수인 魯迅에게 처음으로 가르침을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데, 그로부터 두 사람은 師生에서 점차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⁶⁾ 이틀 뒤인 10월 12일 許廣平은 이들의 사랑을 담은 짧은 소설 〈同行者〉를 魯迅이 편집장으로 있는 《國民新報·副刊》에 발표하며 “한 마음으로 사랑을 향해 뛰어가리라.”⁷⁾는 유명한 사랑 선언을 한다. 〈傷逝〉는 1925년 10월 21일에 완성되었는데 魯迅이 인생의 기로에서 여성과 혼인에 대한 선택의 혼란에 빠져있을 당시의 심경과 관련되어 있다. 일부 학자들은 “《野草》에는 魯迅이 상징적인 창작기법을 통해 연애 중에서 느꼈던 사상적인 변화와 정감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다.”⁸⁾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떠나 《野草》와 〈傷逝〉는 魯迅의 심경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일맥상통하며, 진실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둘째, 발표 시기

1925년 한 해에 魯迅은 7편의 단편소설을 썼는데 〈孤獨者〉와 〈傷逝〉를 제외한 5편은 창작된 후 바로 《語絲》나 《國民新報·副刊》 또는 《莽原》에 발표하였다.⁹⁾ 당시 魯迅은 《語絲》 잡지에 전문적으로 투고를 하고 있었고, 《國民新報·副刊》과 《莽原》 잡지의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 발표는 그리 어려운 일이

5) 鄭虹 〈無法拯救的困境〉: 「〈孤獨者〉和〈傷逝〉, 它們與《野草》共同構成魯迅文字中, 最具個人性的‘傾訴’, 體現了魯迅生命中最真實的部分。」(《深圳大學學報》, 1999年 第16卷, 84쪽)

6) 馬蹄疾 《我可以愛—魯迅的情與愛》: 「10月10日确定了愛情關係」(重慶, 四川文藝出版社, 1993), 122쪽.

7) 許廣平 〈同行者〉: 「一心一意向着愛的方向奔馳。」(『國民新報·副刊』1925.10.12.)

8) 秦方奇 〈走進《野草》〉: 「《野草》是魯迅用象徵性筆法記錄自己在戀愛過程中的思想流動, 感情激蕩的心路歷程。」(《瀋陽師範學院學報》, 2002年, 第1期, 13쪽)

9) 〈長明燈〉은 1925년 3월 1일에 창작되었으며 1925년 3월 5~8일까지 《國民新報·副刊》에 연재되었다. 〈示衆〉은 1925년 3월 18일에 창작되었으며, 1925년 4월 13일에 북경 《語絲》 週刊 22號에 발표되었다. 〈高老夫子〉는 1925년 5월 1일에 창작되었으며, 1925년 5월 11일 북경 《語絲》 週刊 29號에 발표되었다. 〈弟兄〉는 1925년 11월 3일에 창작되었고, 1926년 2월 10일 北京 《莽原》 半月刊 3號에 발표되었다. 〈離婚〉은 1925년 11월 6일에 창작되었고, 1925년 11월 23일 北京 《語絲》 週刊 54號에 발표되었다.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볼 때 1925년 북경여자사범대학 사건으로 教育部 僉事職에서 면직되었으므로 당시 수입이 없었다. 魯迅에게는 원고료가 주요한 생계 수단이었고 소설이 완성되면 바로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이 두 작품은 1926년 9월 소설집 《彷徨》의 출판과 더불어 독자들과 대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 두 소설은 魯迅의 심경고백으로 자신에게 쓴 글이기에 서둘러 발표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소설의 제목과 세부 묘사

중국인들의 습관에 따르면 자신의 부인이 죽게 되면 ‘悼亡’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친구가 세상 뜨면 ‘傷逝’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¹⁰⁾ 소설 속에서 동거하던 子君의 죽음에 涓生은 ‘傷逝’라고 했지 ‘悼亡’이라고 하지 않았다. 즉 涓生은 동거한 子君이 친구였지 결코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魯迅의 마음속에서 朱安은 진정한 아내가 아니라는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한 작품 속에서 동거하기 전 涓生은 子君과 낯은 회관에서 열애를 한다. 그 낯은 회관은 魯迅이 7년 동안 紹興縣館에서 생활했던 補樹書屋의 재현이다. 작품 속에 작가의 익숙한 소품이 등장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의미 있는 것은 子君을 떠나보낸 후 涓生이 돌아온 곳 역시 사랑의 씨앗이 트기 시작한 회관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魯迅은 朱安에게 負罪 의식은 있지만 결국은 許廣平과 동거를 시작한다.

子君이 외쳤던 “나는 나 자신일 뿐이에요. 누구도 나에게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¹¹⁾라는 말은 許廣平이 주장했던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것은 우리하곤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당신들과도 상관이 없다.”¹²⁾라는 호소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涓生이 실직한 후 원고를 쓰거나 번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것 역시 魯迅의 삶과 같다. “‘涓生’ 형상의 기본 원형은 응당 魯迅 본인이다. 魯迅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아 그런 형상이고 그 중에 많은 자기의 인생 체험을 섞어 넣었다.”¹³⁾ 물론, 작품

10) 高遠東 《走進魯迅世界(小說卷)》: 「中國人對妻子的到往習慣上稱爲‘悼亡’, 對朋輩才用‘傷逝’。」(北京, 北京工業大學出版社, 1995, 259쪽)

11) 魯迅 〈傷逝〉: 「我是我自己的, 他們誰也沒有干涉我的權利!」(《魯迅全集》第二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3), 277쪽. (아래부터는 권수와 쪽수만 표시하였음.)

12) 許光平 〈風子是我的愛〉: 「合法也罷! 不合法也罷! 這都與我們不想干, 與你們無關係。」(寫于1925年10月, 發表于1926年2月23日『國民新報·副刊』)

과 현실을 완전하게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작품 창작에 있어서 인물형상은 그 원형이 있기 마련이며, 그 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의 원형을 찾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소설 중에서 涓生과 子君은 반년 넘게 뜨거운 사랑을 하고 동거를 하지만, 동거 직후 子君의 형상은 동거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돌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子君에 대한 涓生の 심리적인 감정 역시 돌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작가 魯迅은 許廣平和 朱安 두 여인을 子君이라는 형상에 융합하고, 그 두 여인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실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동거 전 子君 형상 속의 許廣平

평생 魯迅은 극도의 고뇌에 빠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큰 적막을 느끼고 있었다. 《野草》에서는 이때의 심정을 “愛憎도 없고 哀樂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없다.”¹⁴⁾고 썼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許廣平이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魯迅의 생활에 들어왔다. 許廣平은 魯迅에게 청춘의 활력을 불어 넣었고, 흥분과 걱정, 고민과 걱정, 그리고 무의식 속의 자아를 느끼게 하였다.

1. 진정한 사랑의 동반자

오랜 기다림의 초조 속에서도, 그녀 구두의 높은 뒤축이 벽돌 길에 닿는 맑은 음향이 들리기만 하면, 그 얼마나 갑자기 생기가 돌았던가! (중략) 벌써 10여 쪽이 나 넘어가 있었지만 책에 쓰여 있는 말은 전혀 기억할 수가 없었다. (중략) 그녀가 탄 차가 뒤집힌 게 아닐까? 전차에 부딪혀 다친 건 아닐까? (중략) 우리는 먼저 말없이 서로 지켜보다가, 이윽고 마음을 터놓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또 침묵했다.¹⁵⁾

13) 宗先鴻 〈論《傷逝》人物原型的變形藝術〉: 「『涓生』形象的基本原型應當就是魯迅本人, 魯迅以自己爲模特兒刻畫了涓生的形象, 並在其中融入了大量的自我生命體驗。」(《北華大學學報》第六卷 第六期, 2005年12月, 39쪽)

14) 魯迅 《野草》: 「沒有愛憎, 沒有哀樂, 也沒有顏色和聲音。」(《魯迅全集》第一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3), 481쪽.

15) 魯迅 〈傷逝〉: 「在久待的焦躁中, 一聽到皮鞋的高底尖觸着磚路的清響, 是怎樣的使我

이처럼 절절하고 섬세하며 진실한 심리 묘사를 통해 “애정이 무엇인지 몰랐던”¹⁶⁾ 魯迅은 “그녀에게 의지하며 이 적막함과 공허에서 도망칠”¹⁷⁾ 수 있었고, 許廣平에게서 받은 사랑의 걱정과 흥분을 토로했다. 魯迅은 사랑을 속삭이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초조해하고 흥분하였으며, 생명의 빛을 느끼고 있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본능이며 그 누구라도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20년 동안을 朱安과 사랑 없이 살면서 봉건 예교에 스스로 희생하고자 했던 魯迅도 결국에는 사랑에 마음을 열었다.

실제로 魯迅과 許廣平의 연애, 동거생활은 魯迅의 신체 건강과 그의 창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魯迅의 건강은 줄곧 좋지 않았는데, 〈魯迅日記〉를 보면 마치 장기 환자의 병력서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許廣平은 魯迅과 동거하면서부터 밖에서 하던 모든 일을 접고 가사에 매진하여 魯迅을 보살폈다. 또한 魯迅의 글을 베껴 쓰고, 정리하는 작업을 도왔다. 이러한 許廣平의 사랑으로 魯迅은 제 2의 청춘을 맞이하였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게 된다. 만약 許廣平이 魯迅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선생은 아마도 56세까지 살지 못했을 것이다. 許廣平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중략) 동거 이후 魯迅이 쓴 글은 동거 전 20년의 전체 양보다 더 많았다.¹⁸⁾

許廣平은 필명이 景宋이고 1898년에 廣東 番禺縣의 한 명문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녀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의지가 강했다. 1917년 許廣平은 둘째 오빠를 따라 北京에 간다. 그 뒤 天津 제일여자사범대학 예과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고, 1922년에 졸업하였다. 이듬해 북경여자고등사범학교(북경여자사범대학 전신) 국문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5·4운동 시기 天津에서 공부하던 許廣平은 ‘天津女性愛國同志會’와 ‘覺寤社’ 활동에 참가했다. 1925년, 학생자치회 간사 일을 맡

驟然生動起來呵！(中略)已經翻了十多頁了，但是毫不記得書上所說的的事。(中略)莫非她翻車了嗎？莫非她被電車撞傷了嗎？(中略)我們先是沉默地相視，接着是放懷而親密的交談，後來又是沉默。」(《魯迅全集》第二卷)，276~279쪽.

16) 魯迅 〈熱風·隨想錄〉：「我不知道愛情是什麼？」(《魯迅全集》第二卷)，39쪽.

17) 魯迅 〈傷逝〉：「仗着她逃出這寂靜和空虛。」(《魯迅全集》第二卷)，276쪽.

18) 孫郁 《魯迅與胡适》：「如果不是許廣平出現在他的生活裏，先生大概不會活到56歲，許廣平延續了他的生命 (中略)同居之後，魯迅寫下的文字，超過了他過去二十年的總和。」(瀋陽，遼寧人民出版社，2001)，147쪽.

고 있던 許廣平은 劉和珍 등과 함께 앞장서서 북경여자사범대학 楊蔭榆 학장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3월 11일 魯迅에게 쓴 첫 번째 편지에서 許廣平은 시국과 암울한 사회 그리고 중국의 여성교육문제 등에 대한 어려움을 적었다. 당시 학생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魯迅은 곧바로 자기의 관점과 혼란한 시국을 비판하는 답장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자주 편지 왕래를 하였다. 8월 8일 학교당국은 15명의 학생운동 골수분자들을 부모나 보증인이 데리고 속히 학교를 떠나도록 명하였다. 이 때문에 학교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였고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나 지인들도 연루를 두려워하였다. 바로 이때 魯迅이 나서서 갈 곳 없는 許廣平을 자기 집에 피난 시켰다. 그 뒤 두 사람은 접촉이 잦아지면서 함께 “가정의 전제, 구습 타파, 남녀평등, 입센, 타고르, 켈리 등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¹⁹⁾하게 된다. 魯迅의 집에 머무는 동안 許廣平은 魯迅을 대신해서 글을 베끼고 교정보는 일 등을 하면서 魯迅의 창작과 연구를 도왔다. 또 魯迅이 편집하던 잡지 《莽原》에 글을 투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2. 연인에 대한 열등감

魯迅과 許廣平 사이의 사랑에 있어 許廣平은 시종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 許廣平은 솔직하고 용감하며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 반면에 魯迅은 예민하고 의구심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사랑에 있어서도 늘 생각이 많았고 방황했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自己卑下 심리를 바탕으로 한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다.

魯迅의 성격은 예민하고 의심이 많았다. 이는 잠재의식 속에 내포된 自己卑下心理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일생에 걸쳐 魯迅은 스스로의 自己卑下心理와 투쟁을 해왔다.²⁰⁾ 심리학자들은 이런 自己卑下 심리가 그의 ‘결핍성 경험’²¹⁾에서 초

19) 魯迅 〈傷逝〉: 「談家庭專制, 談打破舊習慣, 談男女平等, 談伊孛生, 談泰戈爾, 談雪來」(《魯迅全集》第二卷), 277쪽.

20) 張建人 等 〈魯迅人格的心理傳記學研究〉: 「終其一生, 魯迅都在和自己的自卑感抗爭着」(《中國臨床心理學雜誌》第三期, 2010, 342쪽)

21) 童慶炳 〈作家的童年經驗及其對創作的影響〉: 「所謂缺失性經驗即他的童年生活很不幸, 或是物質匱乏, 或是精神遭受摧殘、壓抑, 生活極端抑郁、沉重」(《文學評論》

래된 것이라고 한다. 魯迅은 어린 시절 조부가 옥에 갇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면서 집안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였다. 심한 自己卑下 心理는 예민하고 의심 많은 심리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타인을 위협한 존재로 인식하고 방어하기도 한다. 魯迅이 이러한 경향을 모두 갖고 있다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성격에 이런 경향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으며, 사랑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나는 나의 생각, 나의 신상, 나의 결점까지도 거의 숨기지 않고 이미 모두 말했고 그녀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중략) 말할 수 없이 즐거웠고 (중략)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다.”²²⁾라고 하지만, 魯迅의 마음 속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

첫째, 연령과 신체적인 면에서 許廣平과 차이를 느꼈다. 한창 나이였던 許廣平은 젊고 혈기에 차 넘쳤으며 키도 훗날했다. 하지만 許廣平보다 18살이나 많은 魯迅은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고 신체가 허약할 뿐만 아니라 몸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랑의 열기가 식게 되면 許廣平이 자신을 배신할까봐 두려워했다. 이러한 잠재의식은 許廣平이 1925년 12월에 창작한 산문 〈腊葉〉에 드러나 있다.

許廣平과 짝사랑에 빠진 高長虹이 魯迅과 許廣平의 사랑에 질투한 나머지 끊임 없이 공격을 가해오자, 魯迅이 소설 한 편을 지어 未名社로 보냈는데,²³⁾ 그때 보낸 작품이 〈奔月〉이었다. 작품에서 쫓는 달로 향해 떠난 嫦娥에게 버림을 받는다. 쫓는 嫦娥가 떠난 원인을 찾는데 그 때 그가 걱정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나이였다. 쫓는 “嫦娥가 설마 나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²⁴⁾라고 우려한다. 魯迅은 이 신화 속의 쫓를 통해 사랑에 대한 본인의 초조함과 열등감에 싸여있는 심리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魯迅은 나이에 대해 무척 예민했다. 魯迅은 누구든 그의

1993, 第四期, 61쪽)

22) 魯迅 〈傷逝〉: 「我已經說盡了我的意見, 我的身世, 我的缺點, 很少隱瞞; 她也完全了解的了. (中略) 說不出的狂喜, (中略) 最爲幸福.」(《魯迅全集》第二卷), 279~283쪽.

23) 魯迅 〈兩地書 一一二〉: 「那時就做了一篇小說, …寄到未名社去了」(《魯迅全集》第七卷), 321~322쪽.

24) 魯迅 〈奔月〉: 「莫非看得我老起來了?」(《魯迅全集》第三卷), 482쪽.

나이에 대해 거론하기만 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928년 左翼과의 논전에서 상대가 나이를 빗대어 자신을 공격해오자, 바로 〈나의 心態氣量 및 연령〉²⁵⁾이라는 글을 지어 반격한다. 자신의 이런 심리를 감추고 극복하기 위해 魯迅은 許廣平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젊은이들처럼 행동을 한다. 1927년 春節에 魯迅은 許廣平, 廖立峨 등과 함께 毓秀山을 유람 하던 중 자신의 젊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그마한 언덕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발목을 다쳐서 며칠 동안 누워 있기도 했다.²⁶⁾

둘째, 魯迅은 기혼인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19년 전 이미 朱安과 혼인했으므로 朱安은 분명히 세인이 공인하는 魯迅의 '본처'였다. 따라서 許廣平과 함께 하는 것에 합법적인 명분이 없었고, 許廣平이 이 사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설사 許廣平이 이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갈지 확신이 없었다. "나는 異性を 사랑한다. 하지만 감히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자신의 많은 결함을 알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이 모욕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²⁷⁾ 그는 許廣平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이런 괴로움을 고백하였고, 이에 대해 許廣平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표명하면서 魯迅의 우유부단함에 불만을 토로한다. "당신이 한평생 고생한 것은 바로 일방적으로 낡은 사회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다시 말해 한 사람을 위해 스스로 희생한 것이지요. (중략) 그것은 낡은 사회가 당신에게 남긴 유산에 지나지 않아요. (중략)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낡은 관습으로 인해 한 사람을 위해 여러 사람이 희생을 해야 하나요?"²⁸⁾ 이러한 명확한 대답과 선명한 입장도 魯迅의 열등감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했다. 魯迅은 회신에서 "나는 나의 노예적인 삶을 바꿔야 한다... 나 자신도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현재로는 달리 방법이 없다."²⁹⁾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魯迅의 자기비하적인 열등감

25) 魯迅 〈我的心態氣量和年紀〉(《魯迅全集》第四卷), 118쪽.

26) 吳中傑 《吳中傑評點魯迅書信》: 「陰曆正月三日從毓秀山跳下, 跌傷了, 躺了幾天。」(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2), 191쪽.

27) 吳中傑 《吳中傑評點魯迅書信》: 「異性, 我是愛的, 但我一向不敢, 因為我自己明白各種缺點, 深怕辱沒了對手。」, 233쪽.

28) 許廣平 《魯迅景宋通信集 - 〈兩地書〉的原信》: 「你的苦了一生, 就是一方爲舊社會犧牲, 換句話說, 即爲一人犧牲了你自己, (中略) 這犧牲實不啻舊社會留給你的遺產. 我們何苦因了舊社會而爲一人犧牲幾個。」(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4), 241쪽.

29) 魯迅 〈兩地書〉: 「我必須改變我的農奴生活...自己也明知道這是應該改變的, 但現在無法。」(《魯迅全集》第七卷), 258쪽.

을 알 수 있다.

3. 사랑과 현실 사이의 갈등

〈傷逝〉에서 涓生은 子君과의 동거로 주변으로부터 눈총을 받는다. “나는 길거리에서 때때로 훑어보고, 비웃으며, 천시하고 경멸하는 눈초리와 마주치는 것을 느꼈다.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나의 온몸을 움츠러들게 하므로 즉각 나의 오만과 반항심으로 버티어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³⁰⁾ 魯迅은 5·4운동 시기의 우상이며 신문화운동 투사로, 당시 청년에게 ‘선도자(導師)’로 그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이러한 신분과 지위는 魯迅으로 하여금 사회적 시각, 論敵의 공격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다분히 생존을 위해서 생겼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 지위란 바로 나의 그 보잘 것 없는 일을 말하는데 나의 행동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이로 인해 나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³¹⁾ 라고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중국의 전통적 윤리도덕과 관습, 사회 분위기는 남녀문제에 무척 예민했으며 또한 문제로 삼았다. 기혼이었던 魯迅과 18살 어린 학생과의 사랑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필연코 “메기수염을 한 늙은이”들이나 “잔뜩 크림을 바른 젊은이”³²⁾들의 공격을 받는 것은 불 보듯이 확연한 것이다.

涓生과 子君의 동거는 “잔뜩 크림을 바른 젊은이”를 통해 국장에게 전해졌고 이로 인해 涓生은 해고를 당한다. 실직하자 涓生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지만 취직할 수가 없었다. 날로 더해가는 삶의 핍박으로 인해 “첫째는 생활이다. 사람은 반드시 생활을 해야만 사랑도 비로소 따르게 되는 것이다.”³³⁾라고 호소하는데, 이

30) 魯迅 〈傷逝〉: 「我覺得在路上時時遇到探索, 譏笑, 猥褻和輕蔑的眼光, 一不小心, 便使我的全身有些瑟縮, 只得即刻提起我的驕傲和反抗來支持。」(《魯迅全集》第二卷), 283쪽.

31) 荊有麟 《魯迅回憶錄》: 「這種顧忌, 大部分自然是爲生活, 幾分也爲地位, 所謂地位者, 就是指我歷來的一點小小工作而言, 怕因我的行動巨變而失去力量。」(北京, 北京出版社, 1999), 166쪽.

32) 〈傷逝〉에서 “메기수염을 한 늙은이”나 “잔뜩 크림을 바른 젊은이”는 봉건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33) 魯迅 〈傷逝〉: 「第一, 便是生活. 人必生活着, 愛才有所附麗。」(《魯迅全集》第二卷),

역시 〈傷逝〉를 쓸 당시 魯迅이 갖고 있던 의식과 직면한 사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계문제는 창작이나 인생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25년 8월 魯迅은 북경여자사범대학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章士釗에 의해 교육부 침사의 자리에서 면직된다. 비록 수차례 월급이 체불되긴 했지만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당시 魯迅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재원이 되었다. 때문에 면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는 涓生이 면직당한 후, 먹고는 돈을 변통하고 돈을 변통해 와서는 먹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傷逝〉에서 겨울날 땀나무 걱정을 하면서 창작하고 번역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려 했던 부분에 대한 묘사는 魯迅이 직접 겪었던 곤궁한 삶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許廣平과의 사랑, 두 사람에게 닥칠 앞으로의 삶과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한 고민 역시 당연한 것이었다. 魯迅은 許廣平이 곤궁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물질생활의 궁핍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사랑이 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IV. 동거 후 子君 형상 속의 朱安

〈傷逝〉중 涓生과 子君은 6개월 넘는 뜨거운 사랑을 한 후 주위로부터 오는 비난과 눈총을 무릅쓰고 子君은 자기 친족과의 관계까지 끊고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나 동거 직후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동거한 지 “3주일도 못 돼서 나는 그녀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전에 잘 안다고 여겼으나 지금 보면 오히려 간격이었으니, 이른바 진정한 간격을 많이 제거한 것 같았다.”³⁴⁾ “子君은 내가 사온 화초에는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 죽었지만, 관리의 부인에게 전염되어 병아리를 키우고 심지어 병아리 때문에 관리의 부인하고 다투기도 한다. 子君은 집안일에 쫓겨 세상 이야기를 할 틈도 없었다. 하물며 독서나 산책 따위는 말할 것도 없었다. 나에게서는 조용한 방도 없고, 방 안에는 항상 그릇들이 흐트러져

299쪽.

34) 魯迅 〈傷逝〉: 「不過三個星期, 我似乎與她已經更加了解, 揭去許多先前以爲了解而現在看來卻是隔膜, 即所謂真的隔膜了。」(《魯迅全集》第二卷), 284쪽.

있어 안정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실직으로 인해 子君은 얼굴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상황을 그녀에게 넌지시 알려 주었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믿지 않았다.”³⁵⁾ 여기에서 변한 것은 子君뿐만 아니라 子君에 대한 涓生的 심리적 태도였다.

이런 반전은 작가가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魯迅은 연애할 때의 子君과 동거할 때의 子君의 형상을 許廣平和 朱安 두 여인에게 전후로 반영한 것이다. 許廣平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인생의 새 출발점에서 魯迅은 朱安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魯迅이 가지고 있는 ‘魯迅式’ 의식로서는 許廣平과의 사랑을 약속하지만 그로 인해 朱安을 내칠 수가 없었다.

魯迅은 중국사회의 암흑에 대하여 신랄한 폭로와 예리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으며, 특히 중국의 낡은 도덕관습에 대한 비판은 魯迅 문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만든 작가로서도, 사상가로서도 피할 수 없었던 역사적 제한성 즉 ‘역사의 중간인물’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魯迅에게는 구사회의 농후하고 침울한 역사적 陰影이 깔려 있었다. 그가 타고난 聖人이 아닌 이상 장기간에 이루어진 습성을 단번에 깨끗이 가셔버릴 수 없다³⁶⁾고 인정했다. 이는 그가 역사·문화와의 내적인 연관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魯迅은 한 편으로 중국 사회의 낡은 전통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이면에는 자신이 부정했던 낡은 질서의 허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1. 봉건적 결혼의 반력자

〈傷逝〉는 동거 후에 대한 서사가 작품 전체의 4분의 3의 편폭을 차지한다. 이것은 魯迅이 〈傷逝〉를 빌어 사랑의 기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명무실한 혼인, 그리고 朱安에 대한 심정을 ‘傷逝’로 토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동거 후 涓生이 겪은 곤혹스러움, 갈등은 바로 魯迅의 의식 속에 그려졌던 朱安과의 혼인 생활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들은 불행해지고 서로

35) 魯迅 〈傷逝〉(《魯迅全集》第二卷), 284~286쪽.

36) 魯迅 〈寫在“墳”後面〉: 「倘非天從之聖, 積習當然也不能頓然蕩除。」(《魯迅全集》第一卷), 264쪽.

를 원망하고 ‘매달림’으로 인해 같이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기에 魯迅은 처음부터 朱安과의 혼인 생활을 거부했다.

魯迅과 朱安의 혼인은 모친이 일방적으로 맺어준 혼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혼인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 시대가 그렇듯이 자유연애를 통해 자유결혼을 이룩한 사람은 소수였다. 많은 부부들은 先 결혼 後 연애 식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다. 만약 朱安이 魯迅의 혼전 요구대로 전족을 풀고 문자를 배우는³⁷⁾,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었다면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다른 모습이었을 지도 모른다.

朱安은 魯迅의 혼전 요구를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고 혼인 후에도 시어머니인 魯瑞를 돌보고 가사를 돌보는 외에 유일한 취미라면 침대에 누워 물담배를 피우는 것이었다.³⁸⁾ 朱安과 魯迅 사이에는 당연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었다. 魯迅은 “그녀와 말을 하면 무미건조 하다.”³⁹⁾고 했다. 즉, 작품 속의 子君과 涓生の 비극이 곧 魯迅과 朱安의 비극이었으며, 그 근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의식, 문화, 지식, 관념과 정감적인 면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朱安은 阿安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손위의 사람들은 그를 安姑라고 불렀다. 1878년 浙江 紹興의 한 상인가정에 태어났으며 1899년 朱安의 나이 21살 되던 해, 친척의 소개로 周氏 집안과 朱氏 집안은 혼담이 오갔다. 1901년 4월이 되어서야 周氏네는 정식으로 朱氏네 집안과 그해 겨울 魯迅의 礦路學堂 졸업 시기에 맞추어 결혼을 시키기로 했지만, 그 무렵 魯迅은 장학금을 받아 1902년 3월 일본으로 떠났다. 그 후 1906년 朱安이 28살, 魯迅이 25살 되던 해 7월 일본에 있던 魯迅은 모친이 병으로 위급하다는 전보를 받고 바빠 집에 왔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건강한 모친과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결혼이었다. 7월 6일 혼례를 치르는 날, 신부가 꽃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위장하기 위해 신겨놓은 큰 신발이 벗겨졌다. 魯迅은 신부의 작은 발을 보고, 그날 밤 책상 앞에서 밤새도록 책을 읽었고 朱

37) 孔慧怡 〈字裏行間：朱安的一生〉：「周樹人要朱安放脚，然後進學堂讀書。」(《魯迅研究月刊》2002年，第一期)，72쪽.

38) 李洪華 〈同遇與殊途：論胡适、魯迅的婚戀情感及其影響〉：「唯一的嗜好便是躺在臥榻上抽水煙。」(《江西社會科學》2005年，第五期)，72쪽.

39) 俞芳 《我記憶中的魯迅先生》：「大先生曾說，和她(朱安)說話沒有味道。」(杭州，浙江人民出版社，1981)，1472쪽.

安은 독수공방을 하게 되었다. 결혼 이튿날과 사흘날 魯迅은 모친의 방에서 밤을 지내고, 나흘날 결국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후 1909년 6월 일본에서 귀국한 魯迅은 줄곧 집과 가까운 밖에서 생활하였다. 가끔 집에 들렀어도 모친에게만 안부를 전했을 뿐 朱安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⁴⁰⁾ 1912년, 魯迅은 당시 교육부 총장인 蔡元培의 부름을 받고 南京으로 부임하였고, 같은 해 5월 魯迅은 교육부를 따라서 거처를 北京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1919년 魯迅은 北京에서 八道灣에 있는 큰 집을 구입하여 周氏네 대가족은 北京으로 이사를 한다. 朱安은 魯迅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지만 각 방을 썼다. 1923년 7월 형제간의 불화로 魯迅은 八道灣 집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1924년 5월 魯迅은 집을 다시 사게 되었고 朱安과 魯迅의 어머니인 魯瑞가 함께 옮겨갔다. 그러나 여전히 魯迅과 朱安은 방을 각자 쓰면서 생활하였다.

2. 아내에 대한 연민

비록 사랑이 없는 혼인이었지만 魯迅은 朱安과의 혼인을 평생 유지했다. 그 이유는 모친에 대한 효심과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신적 투사’였던 魯迅은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봉건 禮敎에 대해 폭로와 비평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의 중간인물인 자신에 대해서는 “낡은 세력과 스스로를 함께 묶어 그 낡은 세계 속에 같이 함몰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에게 새 길을 터워주는”⁴¹⁾ 방식을 선택했다. 魯迅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봉건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이 명료했고 진보적이었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명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은 내가 생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삶을 마감하는 곳이기도 하다.”⁴²⁾라는 표현은 魯迅 자신의 삶의 반영이자 중국 전통 사회의 구조적 형태이기도 했다. 중국 전통사회의 ‘三綱’과

40) 孔慧怡 〈字裏行間：朱安的一生〉：「每次短暫的逗留，也不和朱安說話，更不進她的房間。」(《魯迅研究月刊》，2002年 第一期)，73쪽.

41) 유중하 〈中間物로 찍은 東아시아의 두 點—魯迅, 橫步의 경우〉(《中國語文學誌》，중국어문학회, 1997, 제4집), 82쪽.

42) 魯迅 〈家庭是中國之基本〉：「家是我們的生處，也是我們的死所。」(《魯迅全集》第五卷)，217쪽.

‘長兄如父’의 윤리도덕관은 魯迅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의 작품 속에서도 그런 의식이 체현되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魯迅은 자력으로 가족의 생계를 떠안고 어머니와 두 동생들을 돌본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삼형제는 영원히 떨어져서 살지 않을 것이며 돈이 생기면 함께 쓰고, 죽을 먹든 밥을 먹든 함께 할 것이다.”⁴³⁾라고 동생들에게 말하였다. 심지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북경에다가 큰 집을 마련하고 삼형제가 함께 생활하면서 대가족의 삶을 수호하기에 이른다. 이런 대가족 속에서 큰 형인 魯迅은 아버지 노릇을 해야 했고 동생들에게는 모범을 보여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칠거지악(七出)’을 범하지 않았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아내거나 이혼할 수는 없었다.

또한 魯迅의 모친에 대한 존중은 남달랐고 모친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컸다. “魯瑞의 강한 성격과 도전정신, 강한 의지력은 고스란히 魯迅에 의해 계승되었다.”⁴⁴⁾ 魯迅이 필명의 첫 글자 魯를 어머니의 성에서 따온 것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생을 겪거나 불행한 운명에 처한 선량한 과부형상, 그리고 모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많은 작품의 배경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설정된 것 등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40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셋을 키운 모친의 불행과 어려움에 대해, 집안의 큰 아들로서 魯迅은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 때문에 魯迅의 잠재된 의식 속에는 모친에 대한 존경과 순종만 있을 뿐 반항은 있을 수 없었고 오로지 모친에 대한 효도와 모친의 짐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새기며 살았다. 중국 전통 관념인 ‘百善孝爲先’으로 자신의 행복을 모친에 대한 효도로 바꾸었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녀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밖에 없다.”⁴⁵⁾고 했다.

魯迅은 두 동생에게 “우리 모친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다. 때문에 우리

43) 李允景 《走進魯迅世界(書信卷)》: 「橫豎我們三兄弟將來永不分家, 有了錢大家用, 有飯吃飯, 有粥吃粥。」(北京, 北京工業大學出版社, 1995), 242쪽.

44) 彭定安 《魯迅評傳》: 「(魯瑞)性格堅強, 他把自己的性格和思想遺傳給了自己的兒子。」(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2), 152쪽.

45) 吳中傑 《吳中傑點評魯迅書信》: 「我有一個母親, 還有些愛我, 我因爲感激他的愛, 只能不照自己所願意做的做。」(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2), 185쪽.

는 앞으로 모친에게 효도를 잘 해야 한다.”⁴⁶⁾고 말한 바와 같이 이를 평생 실천하며 살았다. 하지만 魯迅의 모친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효도는 동시에 魯迅을 ‘속박’하기도 했다. 魯迅은 한 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장자의 책임을 다해야 했으며, 모친에 대한 효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런 ‘인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으로 넘쳤다. 魯迅은 〈아버지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부모는 자식이 “내가 아니라는 이유에 따라 해방하고 그들을 완전히 그들 자신이 되게 하고 독립한 인격이 되게 해야 한다. (중략) 자기가 인습의 무거운 짐을 지고 킁킁한 수문 안쪽에서 어깨로 문을 밀쳐 열어 그들을 넓고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으로 내 보낸다. 이후에는 행복하게 생활하고 합리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⁴⁷⁾고 했다. 이런 ‘염원’과 ‘현실’ 사이의 모순은 魯迅의 인간적인 측면으로서 오욕칠정을 가지고 속세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3. 사랑과 인륜 사이의 갈등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처한 여성들에 대해 魯迅은 무한한 동정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이해와 동정으로 말미암아 魯迅은 朱安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이 ‘周太太’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周氏 가문의 며느리로 살 수 있게 하였다.

〈傷逝〉에서 동거 후의 생활에 대한 묘사는 바로 魯迅이 가상적으로 그린 朱安과의 혼인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이 없는 혼인 생활로 고통을 받던 涓生은 “새로운 희망은 우리 두 사람이 헤어지는 길밖에 없다.”⁴⁸⁾고 생각하여 子君에게 속마음을 말한다. 이에 버림을 받은 子君은 위엄과 차가운 눈초리 속에서 ‘묘비조차 없는 무덤’으로 생명을 귀결한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涓生은 ‘마음이 오

46) 李允經《魯迅의婚姻与家庭》:「我們的母親是世界上最好的母親, 我們將來都要好好孝敬母親才對。」, 242쪽.

47) 魯迅〈我們現在怎樣做父親〉:「因爲非我, 所以也應同時解放, 全部爲他們自己所有, 成一個獨立的人。(中略) 自己背着因襲的重担, 肩住了黑暗的閘門, 放他們到寬闊光明的地方去; 此後幸福的度日, 合理的做人。」(《魯迅全集》第一卷), 116~130쪽.

48) 魯迅〈傷逝〉:「我覺得新的希望就只在我們的分離。」(《魯迅全集》第二卷), 295쪽.

히려 더 무거워지고' 공허와 적막 속에서 '회한'과 '비애'를 느낀다.

이는 바로 魯迅이 許廣平에게 나의 일생은 “인도주의와 개인주의 이 두 가지 사상의 消長과 기복의 과정일 뿐”⁴⁹⁾이라고 말한 내용과 유사하다. 이는 자기의 아내이자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여성인 朱安에 대해 증오와 연민, 버림과 동정의 모순을 보여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魯迅은 전통 예의도덕의 지배 하에서 중국 여성들의 운명을 깊이 알고 있었다. 나는 중국의 여인들이 어떻게 억압을 받았는지 기억한다. 어떤 때에는 짐승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았다.⁵⁰⁾ 그러기에 魯迅이 신문화 운동에 투신하여 처음 쓴 논문은 바로 전통 예의도덕이 부녀자들에게 행한 폭행을 폭로 비판한 〈나의 정조관〉이었다. 朱安과의 혼인에 있어서 비록 사랑은 없지만 헤어질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朱安을 내친다면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에 빠지게 됨으로 朱安을 동반하여 “여성으로서 어떤 잘못도 없고 단지 현실의 낮은 관습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함께 평생을 그 희생양이 되겠다.”⁵¹⁾고 다짐을 하게 된다. 이런 각오로 20년 가까이 수도 자처럼 생활해 오던 중에 許廣平이 그의 삶에 등장하였다. 그때부터 魯迅은 “새로운 삶을 향해 과감한 첫걸음”⁵²⁾을 내딛게 된다. 따라서 魯迅의 여성과 혼인에 대한 갈등은 그의 인생을 비탄에 빠뜨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창조와 개혁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되었다.

V. 결론

〈傷逝〉의 창작으로 귀결되는 魯迅의 여성과 혼인에 대한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傷逝—涓生的 수기〉의 서두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회한과 비애에

49) 魯迅 〈兩地書〉: 「或者是人道主義與個人主義這兩種思想的消長起伏罷。」(《魯迅全集》第七卷), 98쪽.

50) 魯迅 〈華蓋集(忽然想到)〉: 「我還記得中國的女人是怎樣被壓制, 有時簡直並羊而不如。」(《魯迅全集》第三卷), 66쪽.

51) 魯迅 〈熱風·隨想錄〉: 「在女性一方面, 本來也沒有罪, 現在是做了舊習慣的犧牲——也只好陪着作一世犧牲。」(《魯迅全集》第二卷), 41쪽.

52) 魯迅 〈傷逝〉: 「向着新的生路跨進第一步去。」(《魯迅全集》第二卷), 304쪽.

관하여 써보고 싶다. 子君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⁵³⁾라는 말로 시작된다. 〈傷逝〉에서 지식인 涓生과 신여성 子君은 자유연애를 통해 동거를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魯迅은 涓生을 통해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이중성을 동거 전후의 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다. 涓生の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에 매료되어 신여성인 子君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그의 봉건적이고 나약한 성격으로 인해 子君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삶을 마감한다.

〈傷逝〉에서 涓生の 형상은 작가 魯迅의 삶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魯迅은 許廣平和 朱安 두 여인을 子君이라는 형상에 융합하고, 두 여인과의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즉, 魯迅이 불혹의 나이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의 기쁨과 고민, 봉건적인 혼인으로 인한 아내에 대한 반감과 연민을 담아냄으로서 여성과 혼인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점과 유사하다.

魯迅은 “문장을 논의하려면 全文을 다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가 전체를 살펴야 하며, 작가가 처한 사회 상태도 유념해야 만이 비교적 정확하다.”⁵⁴⁾고 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투사’나 ‘선봉’과 같은 仰視가 아닌 平視의 시각으로 볼 때, 魯迅의 내면에는 ‘전사’로서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기쁨과 비애도 느끼고 각광 밑에 심리적 열등감도 문혀 있었다. 또한 그의 맹렬한 공격과는 다르게 떨칠 수 없는 인습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순되는 다른 일면의 魯迅을 〈傷逝〉에서 볼 수 있었다.

【參考文獻】

- 魯迅《魯迅全集》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3
 李長之《魯迅批判》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10
 孫郁《魯迅與胡适》瀋陽, 遼寧人民出版社, 2001

53) 魯迅〈傷逝〉: 「如果我能够, 我要寫下我的悔恨和悲哀, 爲子君, 爲自己。」(《魯迅全集》第二卷), 276쪽.

54) 魯迅〈題未定“草”〉: 「我總以爲倘要論文, 最好是顧及全篇, 並且顧及作者的全人, 以及他所處的社會狀態, 這才較爲確鑿。」(《魯迅全集》第六卷), 425쪽.

- 荊有麟《魯迅回憶錄》北京，北京出版社，1999
- 徐麟《魯迅中期思想研究》長沙，湖南師大出版社，1997
- 李允經《走進魯迅世界(書信卷)》北京，北京工業大學出版社，1995
- 高遠東《走進魯迅世界(小說卷)》北京，北京工業大學出版社，1995
- 李允經《魯迅的婚姻與家庭》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1990.
- 彭定安《魯迅評傳》長沙，湖南人民出版社，1982
- 許廣平《魯迅景宋通信集－〈兩地書〉的原信》長沙，湖南人民出版社，1984.
- 俞芳《我記憶中的魯迅先生》杭州，浙江人民出版社，1981
- 吳中傑《吳中傑點評魯迅書信》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2
- 박종석《작가 연구 방법론》서울, 역락사, 2005
- 張建人等〈魯迅人格的心理傳記學研究〉；《中國臨床心理學雜誌》，2010年 第三期
- 甘智綱〈魯迅日常生活考證〉；《魯迅研究月刊》2006年 第八期
- 孔慧怡〈字裏行間：朱安的一生〉；《魯迅研究月刊》，2002年 第一期
- 宗先鴻〈論〈傷逝〉人物原型的變形藝術〉；《北華大學學報》第六卷 第六期，2005年12月
- 李洪華〈同遇與殊途：論胡适、魯迅的婚戀情感及其影響〉；《江西社會科學》2005年 第五期
- 丁潤生〈情感的壓抑與詩的升華〉；《黔南民族師範學院學報》2004年 第五期
- 宋劍華〈《傷逝》：魯迅對思想啓蒙的困惑與反省〉；《河北學刊》2010年 第四期
- 秦方奇〈走進《野草》〉；《瀋陽師範學院學報》2002年 第一期
- 鄭虹〈無法拯救的困境〉；《深圳大學學報》第16卷，1999
- 許廣平〈風子是我的愛〉：寫于1925年10月，發表于1926年2月23日《國民新報·副刊》
- 童慶炳〈作家的童年經驗及其對創作的影響〉；《文學評論》1993年 第四期
- 유중하〈中間物로 찍은 東아시아의 두 點 — 魯迅, 橫步의 경우〉；《中國語文學誌》，중국어문학회, 1997, 제4집

【中文提要】

魯迅作為中國新文化運動的主將，他的小說一直被視為中國現代文學經典作品中的代表，但是對其作品的解讀，從學者乃至一般讀者都定位于歷史，社會、傳統、思想等界面。這種潛意識的規則，使得魯迅研究大多折射在對魯迅

的‘仰視’之下，局限于‘旗手’、‘先驅’，而對‘人間魯迅’個體的愉悅、哀傷、激情、抑郁、奮進，徘徊都置於‘思想家’、‘戰士’光環的陰影裏，對作為‘歷史中間物’的魯迅無以超越的對傳統的承受，更是諱莫如深。

對《傷逝》亦同魯迅的其他作品，對其文本的解讀，多從社會功利角度出發，闡釋或為‘五四’時期，追求自由婚姻，個性解放的青年男女，遭遇社會、經濟的壓力，回歸舊家庭，或為魯迅對婦女解放的思考及魯迅的女性觀等等。而本文通過《傷逝》文本晦澀的內容所傳遞的濃烈情感與表現方式的獨特以及敘事與情感的矛盾，結合作品寫作，發表時間，及同一時期作者的生活和情感經歷，以‘平視’的角度解讀了既是偉大的思想家、文學家，又是真實存在的，有感情、有苦惱、有困惑的普通人魯迅，面對愛情與婚姻、名譽與地位、傳統與背叛，所表現出的疑慮，自卑和彷徨的心境。

解讀《傷逝》，釋放其內涵，從另一個側面了解作家魯迅在二十年代中期的人生歷程，理解其作為人類‘個體’的喜怒哀樂，揭示其生活體驗與創作之間最深切的關係，使得思想家，文學家的魯迅具有更豐富、更廣闊、更真切的意義空間。

【主題語】

魯迅, 涓生, 子君, 許廣平, 朱安, 여성, 혼인, 갈등, 열등감

투고일: 2011.10.20 / 심사일: 2011.10.24~11.6 / 게재확정일: 2011.11.10
--